

둘로 보지 말고 주인공에 놓고 살라

19면에서 계속

때문에 원수가 되는 거예요. 왜 그 아버지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만나지 않았더라면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는 어머니 속을 안 썩이고 잘하겠습니까? 늘 어머니 팔 다리를 주물러 드리면서 "제가 속 많이 썩혀 드렸죠?" 하면서요. 그런데 그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인연이라. 예를 들어서 말했는데 이걸 거짓으로 알지 마십시오. 생활 속에서 지금 허다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마음을 인의롭게 쓰고 착하게 쓰고, 상대방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지고, 항상 인내하고 자비가 있고 지혜롭게 한번 둘러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그런 악한 인연도 짓지 않고 선한 인연에도 매이지 않고, 모든 것을 맡겨놓고서 살아나가는 반면에 스스로 언제나 질서와 계율을 지키면서 스스로 지혜를 넓혀가면서 악의 인연이 아니라, 아름다운 선의 인연으로서, 주고받는 불빛처럼 항상 밝아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가 지어놓은 대로, 밝은 마음으로 언제나 죽지 않는, 꺼지지 않는 그 불빛에 의해서 밝게 살 수 있는 인연을 깨닫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 하나도 둘로 보지 말고 또 아무리 악한 종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 속으로 탄압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이것도 내 인연에 따라서 왔으니 내 탓이지 누구의 탓이 아니다'고 생각하면서 한걸음씩 돌려서 거기에 맡겨놓도록 하십시오. 그 모두가 인연법에 의해서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해놓고 지속적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중문서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이 역경을 거쳐 나오면서 살던 습의 중문서를, 모든 걸 태워버리라고 지금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것이 하나하나 녹여 나가는 삶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외모가 변하면 마음이 바뀔까요

문 성령수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 눈 위에는 지방질이 많아서 그것이 꼭 제 아집덩어리인 양 불만입니다. 수술해 버리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지만 망설여지는 이유는 부모님이나 형제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싶고 용기가 나질 않아요. 외모보다는 마음이 중요하지 하는 오만한 생각으로 살기는 합니까만 지방질을 제거하고 나면 인상이 부드러워질 것 같고 마음도 좀 부드러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스님, 마음이 변하면 외모가 바뀔까요. 외모가 변하면 마음이 바뀔까요. 사실이 다 되어가는 이 나이에 아직도 외모에 꼬달리고 있는

중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답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기까지 얼마나 쫓고 쫓기면서 진화해서, 마음이 진화되니까 몸도 바뀌어지고 이렇게 인간까지 왔다는 사실을 아신다면 그런 말을 안 할 겁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결코 틀이 아닙니다. 그러나 몸에서 일어나는 일یدن, 물질에서 일어나는 일یدن 가릴 것 없이 모두 한마음 주인공에 놓고 사세요. 내가 여러분에게 늘 하는 말이지만 이 말이 전부입니다.

그러면 주인공은 무엇인가? 우리가 흔히 "나"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 면에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몸이고, 둘째는 마음, 셋째는 마음 내기 이전의 무엇입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말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만 잘 들어보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가 모여서 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몸은 무엇인가.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을 자동차에 비교해 보면 차체와 같습니다. 몸에서 마음이 빠져나가 버리면 몸은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몸은 마음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러니 몸이 차체라면 마음은 그 차체를 움직이는 주인 즉 운전사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없는 몸은 목석입니다. 그렇다면 몸 없는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주인이네, 사자(侍者)네 하지만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음입니다. 마음은 선하기도 하고 착하기도 합니다.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노하기도 하고 해매기도 합니다. 마음은 참으로 좁장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때의 마음은 우리가 한마음이라고 할 때의 그 마음과는 다른 면에서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마음 그 이점을 말하게 됩니다. 생명력 자체라고나 할까요. 근본이 있습니다. 차로 비유하자면 어떻게 될까요. 어쩌면 그 차와 운전사를 모두 있게 한 근원적인 그 어떤 원리일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 있습니다. 주인공이란 말하자면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셋을 모두 합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 셋이 각각이면서도 하나이고, 하나이면서도 각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로 돌아가는 것이 곧 주인공의 움직임입니다. 그렇게 꼭꼭 돌아가기 때문에 공(空)이라고 말합니다. 공이란 텅 비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꽉찼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습을 바꾸려고 하기 이전에 그 모습을 있게 한 참 마음을 믿고 관여야 합니다. 물론 수술을 한다면 당장 보이는 모습이 좋아 보일 수 있겠지만 그렇게 만든 인연은 아직 남아있는 것이니 그것이 단순히 좋아졌다고는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밖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을 버리고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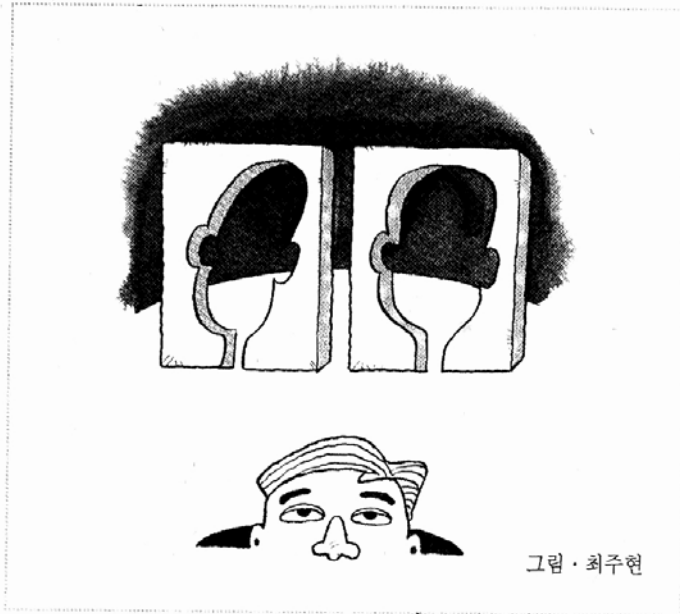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마음을 항상 인의롭고 착하게 쓰고 상대 입장 생각해 보는 여유 갖도록

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습의 그림도 각자 자기가 다 그려서 나왔지만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자기 도수에 맞게 연연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생각에 빠져서 공부에 지장이 있을까봐 일부러 아주 힘있게 모습을 해가지고 나오는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 자신이 자기 모습을 보면서 더욱 마음으로 겸손하고 인자하게 할 수 있는 재로 알고 그런 마음으로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대하면서 생활해 간다면 그 마음의 향기는 온 누리에 가득 할 겁니다.

일요일마다 선원가야 하나요

문 저는 중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같이 주인공 공부 하면서도 공부하라는 소리가 입에서 끊이지 않아요. 어머니가 재발이 아들을 믿고 한번 맡겨 놔 주면 좋겠어요. 스님께서 저희 어머니께 한번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저는 요즘 저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에 너무 불만이 많이 생겨서 어머니와 많이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스님, 선원에는 일요일마다 꼭 가야만 하나요? 그것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 너도 법회에 오니까 관찰 줄 알지? 중학생이라니까 내 말을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왜 관찰이라고 하면,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 어머니와 아버지의 정자 난자가 한데 합쳐져서 내가 태어났는데 말야.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의 정자 난자가 만나서 내가 잉태됐지만,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올 때는 내가 너의 생명력을 가지고 들어간 것이란다. 내가 원소를 가지고 들어가야 태어나는 것이지. 그래서 삼합이 한데 합쳐져서 태어났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너의 지금 모습은 현재 너고 또 모습 없는 정신체는 과거 너라고 하는 거지.

그러기 때문에 현재 너는 과거 너를 믿고 안되는 게 있으면 너만이 할 수 있어'하고 친구처럼 생각하면서 관하고, 또 어떤 일이 생겨도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도 너 뿐이야'하고 그렇게 관해. 그리고 공부도 해야 되니까 너만이 공부를 제대로 잘 하게 할 수 있어'하고 그렇게 관해. 마음이 괴로우면 괴롭지 않게, 마음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것도 너뿐이라고 그렇게 하고 말야. 과거 친구와 현재 너가 아주 단짝이 돼야 돼, 알았지? 그래서 네가 한평생 살아나가는 데에

조금도 걸림이 없고 남한테 속임이 없이 살 수가 있어. 너도 생각하겠지만 지금 시대가 얼마나 들쭉날쭉하니. 그러니까 조심해서 항상 관하고 살아야 해. 네 친구가 다른 데도 아니고 바로 너한테 있으니 얼마나 든든하겠니? 그게 자붙이야, 자붙. 네 주장자이기도 하고, 일론 쉽게 말해서 에너지통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말야.

그래서 네 엄마에게도 이렇게 이야기 해주고 싶구나. 왜 주인공이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믿고 맡기기 때문에 주인공이요. 엄마들이 보기에는 자기 자신들이 다 건성으로 노는 것 같지만 다 그 욕심 때문에 그렇게 조바심 내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 소리도 하지 말아요. 하지 않아도 어개가 무거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좀 쉬기라도 하라고 해주고, 또 그렇게 먹으라 쉬어라 하는 것도 자꾸 그러면 귀찮은 겁니다. 좋은 뜻으로 하는 소리지만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이지 지나치면 그게 오히려 거꾸로 돌아가요.

그러니 다 각자 주처는 자기한테 있으니까 자기 주처에, 주인공에 믿고 맡기면 얼마든지 어렵게 살 수 있다고 본인들도 그렇게 알고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심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일요일날 부득이해서 선원에 못 올 때는 꼭 안와도 돼. 그런데 왜냐하면 급한 일이 있으면 그럴 때야, 그러나 못 나올 때는 관해. '주인공' 이렇게 부르는 건 조금전에 얘기했듯이 과거 원소 자기를 부르는 소리야. 그래서 주인공, 절에 못 나가도 여기서 잘하게 할 수 있었어.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해. 그러나 올 수 있는데도 계를 피우지 말고, 왜냐하면 내가 꼭 이 마음 공부를 하려고 마음먹었다면 남이 하는 것을 보고 들을 때 진전이 있거든. 그러니까 선원에 나오라고 하는 거야.

법도에 부처님이 아무 일도 안하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아도 그냥 계시는 게 아니란다. 부처님은 보이지 않게 다니시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관하면 보이지 않게 자꾸 작용을 하고 그러는 거지.

그리고 엄마 말씀도 고분고분 듣는 학생이 되도록 해. 그렇지 않은 생각이 버릇이 되면은 늘 마음도 몸도 약약약 약하니. 정 일이 있어서 선원에 못 오겠거든 '어머니 오늘은 일이 있어서 선원에 못 가게 됐어요. 어머니 다녀오세요'하고, 또 공부도 내가 알아서 하면 어야 하고도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야.

엄마가 자꾸 공부하라고 해서 화가 나도 '주인공, 엄마가 저렇게 집착을 안 하시고 화나지 않게 너만이 할 수 있잖아'하고 이렇게 관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엄마가 공부하라는 소리 안하고 또 나도 화 안나게끔 되게 하는 것도 너만이 할 수 있다고 주인공에 자꾸 관

해. 그러면 저절로 그렇게 돌아가. 뭐든지 돌아가지 않고 그냥 있는 건 없어. 과거가 따로 없고 미래가 따로 없고 현재가 따로 없다는 얘기가. 이 공부하다 보면은 참 재미있는 일이 많단다. 항상 그렇게 하면서 학교 생활도 잘하고 가정에서도 믿을 수 있는 아들이 되기 바래. 열심히 공부하다가 또 만나자.

딸이 가출했습니다

문 25살 먹은 딸이 가출을 했습니다. 한마음으로 간절하게 불이 같이 들어오게끔, 있는 곳이나 알고 싶은데 소식을 안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스님 좀 가르쳐 주세요.

답 내가 항상 그러합니다. 공부를 안 하고, 온통 나쁜 짓은 하는 데로 다 하고, 나가서 잠을 자고 안 들어오고, 가출하고 이러면 부모가 얼마나 속이 썩겠습니까. 배우는 시기에 배우야 할데 그렇게 어긋나지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거를 나무라지 말고 주인공에 다 맡겨라 이겁니다. 그런 것은 부모가 말로 하고 때리고 가둬둔다고 해서 고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벗어날 수록 입으로는 부드럽게 해주고 나가서 소식을 없다가 들어오더라도 '네 어디로 그렇게 다녔니? 배고프지 않았니? 잠은 어떻게 채우나 자지 않았니?' 이렇게 부드러운 말로 해주고, '배고픈데 어서 먹어라'하고서 '내가 차려주마' 하고 이렇게 좋은 부드러운 말을 따뜻하게 해 줘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 안된 거 잘못된 거는 여기도 다 맡겨라 이거예요. 그렇게 해야 아무리 잘못했어도 마음이 틀어지지 않지 '너 잘못하고 이런 거 알아. 몰라?' 그러면은, 반발심이 생겨서 더 하지 않습니다. 잘못한 걸 변연히 알면서도 잘 안 고치려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심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르게 이끌어 가지고 가는 데는 자비심이 거기에 깰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속이 상하는데 무슨 자비야?' 이러겠지요. 그러나 거기도 다 맡기시고 그냥 고쳐지게 맡을 해 주시는 것이 그것이 고쳐지는 방법입니다.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애들한테도 항상 가르치면서,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자기 소유물로 생각하지 말고 내 자식이라는 게 영원하다는 것도 생각하지 말고 항상 잘못된 게 있으면 인의롭고 부드럽게 그렇게 말하고 모든 것은 거기에다 맡겨 놓고... 진정한 사랑이라는 걸 수 있다는 것이지 그냥 겉으로 말하고 따지고 온통 분란을 일으키고 그렇게 해서 가출하게 만들고 이탈하게 만들고 몸종인 안 나기도 마음이 벌써 바깥으로 나가게 만들고 이러면 부모의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 '무사히 집에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것도 오직 당신만이 할 수 있다.'하고 자극하게 관하고 집에 돌아오면 더 잘 해주세요. 마음이 따뜻한 마음으로 모이지 그렇지 않고 몸종이만 잡아놓으려고 하면 더욱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아시고 오직 나의 근본에서만이 자식을 올바르게 이끌어 줄 수 있다는 것을 한 사람도 잊지 말고 생활하시기를 당부합니다.

법공안페이는 동참을 원하는 중단·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불을

피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안페이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중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

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중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불자정보

..... 불자정보광고는 불자들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만날 수 있는 생활광고입니다.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구직, 불교관련상품 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불자정보 문의

홍보내용을 정하신 다음 전화나 FAX로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02)732-1522(直), (02)737-8881(代) FAX: (02)737-0697
 * 현대불교 전국 지사·지국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 최소규격

세로 5cm × 가로 4cm (1회 4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사찰 토굴 부지안내

세로 5cm × 가로 5cm (1회 5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구인·구직

(50대 조계종 비구스님)
조용한 암자 관리 하여 드립니다.
 (신중한 전화 부탁 함)
 011)9328-6661

사찰 안내

- 위치: 경기도 성남
- 건물: 3층, 30평
- 특징: 부처님, 불기조성, 후불탱화
- 가액: 천만원

031)721-1203

사찰 안내

- 위치: 강북구 수유동
- 대지: 60평
- 인법당: 20평

전세
 02)816-7104

사찰 안내

- 위치: 전북 용담읍 유원지 내
- 특징: 자연 석굴법당, 전록 제일 기도 도량
- 대지: 종교용지 500평, 전 60평
- 건물: 목조기와 25평, 50여대 주차 가능
- 가액: 2억

011)9646-5808

좋은 위치의 포교원 운영하실 분

- 위치: 부산 광역시 만덕 3동
- 면적: 3층 40평(옥상 사용 가)
- 시설: 법당, 주방, 대방, 중방, 화장실

051)333-0172

20년동안 명리학을 연구한 비구승입니다.

인연있는 사찰은 연락바랍니다.
 011)879-3217

포교당 안내

- 위치: 대구 서구청 4거리(한빛은행앞편)
- 평수: 4층 건물 3층, 46평
- 가액: 보증금 1,500만원, 월 50만원·시설비 천만원
- 특징: 시설 A급 위치 최고(법당 시설 일체, 방 3개) 후불탱화 53부처님, 관세음 보살, 칠성 탱화, 문수보살, 지장보살

053)565-0430 / 016-875-0934

토굴 안내

- 위치: 울산시 울주군 상동면 조일리 보삼마을
- 평수: 145평, 옛집 2채
- 가액: 절충 가능

051)508-6779

사찰 안내

- 위치: 서울 관악구 신림동
- 법당 12평, 요사, 방 2개, 주방, 마당 50평
- 특징: 40년된 절
- 가액: 4,000만원 보증금 월 50만원

02)853-8612/856-3405

사리함(石)

- 크기: 38×22Cm
- 연대: 신라시대
- 사리: 38과

토굴 불사에 조금 도와 주시면 진귀한 보물을 양도해 드리겠습니다.
 ○연락 주시면 사진 우송해드립니다.
 (053) 985-4675 017-511-4675

부전 스님 구합니다.

◆ 50세 이하 ◆
 051)508-6779
 051)508-5165

포교당 안내

- 위치: 울산 중구 태호동 오일시장 대로변 동강병원 2분거리
- 구조: 2층 건물 2층 30평(법당, 방 2개) 비구님, 무속인 끌려하시는 스님 적당
- 시설: 아이티룸, 지장보살, 신중탱화, 후불탱화
- 가액: 보증금 500만원에 월 30만원 시설비 별도 절충

011)874-4567

포교원 안내

- 위치: 2호선 서울대 지하철 부근
- 평수: 23평
- 구조: 4층 건물에 4층
- 특징: 4개 3층용 방한 집기 일체
- 보증금: 700만원 월 58만원
-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1)352-0269
 02)877-4353

사찰 안내

- 위치: 부산시내 최 요지
- 법당: 250평 이상 鐘: 120평 이상
- 법당: 50평 포교당 최 적지
- 가액: 답사후 결정 부산시내 사찰화가 있음
- 법: 1,300 평당 50만원

051)208-1122
 011)874-8122

사찰 안내

- 위치: 삼척시 노후면
- 부교지, 건물: 법당 13평 1개, 큰방 3개, 작은방 2개, 부엌 2개
- 특징: 신세종교 계곡이 좋고 경치 좋음, 마을과 200m 떨어진 곳
- 가액: 500만원 (하실분만 연락바랍니다)

033)574-1358